

총무원장 당선인 편백운 스님과 신임집행부 소임자들이 상견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고종 제26대 총무원 집행부 구성

재경부원장 성오 · 교육부원장 능화 스님 등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당선인 편백운 스님이 임기 시작을 앞두고 9월 23일 1차 집행부 인선을 마쳤다.

편백운 스님은 재경부원장 성오 · 교육부원장 능화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은담 · 교무부장 월조 · 재경부장 법정 · 문화부장 석천 · 사회부장 진원 · 규정부장 혜암 · 홍보부장 성철 스님을 내정했다. 사서실장에는 도해 스님이 임명됐다. 내정된 스님들은 향후 열리는 중앙종회서 임명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편백운 스님을 비롯한 신임 총무원 소임자들은 9월 15일 오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함께 예불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다. 이 자리서 편백운 스님은 "소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도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 승가의 본분을 늘 되새기면서 종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좋은 길라잡이가 돼 종단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한 각고의 정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 집행부는 22일로 임기가 만료된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위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듭 다짐했다. 도산 스님은 전국 종무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새 집행부에 축하의 덕담을 건네며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 굳은 각오와 공심으로 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9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제25대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이임과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대안, 불교에 있다"

조계종 포교원, 국회 의원회관서 9월 16일 포교연찬회



인성교육을 주제로 열린 연찬회에서 박범석 교수(왼쪽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연찬회에는 종교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활발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청소년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 보살정신 등 상생의 사상은 국가 인성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폭력사태 등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국회에서 인성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열어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제74차 포교연구실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정갑윤 · 노웅래 국회의원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국가의 인성교육 정책과 불교적 인성교육의 상호관계' 주제를 통해 국가 인성교육에서 불교 인성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단했다.

성 교수는 "오늘날 법과 제도로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겠다고 나선 사실은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한다"며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덕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종교만큼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는 사상이 없다. 특히 불교의 경우 천혜 자연환경에 자리 잡은 사찰이라는 치유와 상생의 인프라, 또 자신을 성찰하는 수행법, 출가자라는 인적 자원은 인성교육의 좋은 기반"이라며 "국가 주도형 인성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청소년문제 대안 '인성교육'
보살정신 등 불교 가능성에
포교 아닌 근현대사상 반영
지홍 스님 "교단 차원 접근"

하지만 성 교수는 인성교육이 포교나 전법 개념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슬람 근본 원리주의처럼 종교 근본으로 돌아가 인성교육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성교육의 개념이 근현대 도입된 만큼, 각 종교에서도 근현대 발달한 인권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 교수는 "불교계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 불교지식을 쌓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실천이 가능한 공동체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와 긴밀한 연결을 통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발표한 박범석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불교 인성프로그램의 과제로 △명확한 지침과 틀 제시 △효과성 드러내는 논의기구 운영 △평화, 중재, 관용 등 통합적 지혜를 키우는 활동 △불교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교 인성교육에 인터뷰, 설문지, 델파이조사 등 경험적 연구방법과 사변적 이론적 연구를 병행해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연찬회를 주최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했다. 불성이 곧 인성이다. 불교 교단 역시 인간 본성 회복과 함께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연기적 존재라는 삶의 지혜를 전파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은 2012년 인성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13개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2600여 청소년들이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에 참여해 인성교육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선관위, 수불 스님 선거법 위반 고발

선거운동기간 전 기자회견 정견발표 문제로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9월 18일 기자회견을 연 수불 스님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호법부에 고발키로 했다.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등록 후 기자회견서 개괄적인 종책기조를 밝혔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자격심사 이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종훈)는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330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수불 스님의 기자회견을 정견발표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호법부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회의 직후 관계자 브리핑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앞서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들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특정 후보 지지나 공약집 제작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종법은 단순한 의견 개진 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가하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타 후보인 혜총 · 원학 스님은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수불 스님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다른 후보들은 공약을 뒤늦게 알리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수불 스님의 교구본사 대중공양금 전달 논란도 호법부에 조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종회의원들이 이미 호법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다만 등원요청을 비롯해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는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SNS를 통한 후보자 지지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논의, 선거인단 321명을 대상으로는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SNS 활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⑪ 49%와 51%

1% 의지가 있다면 도전하길…

내 나이 서른아홉쯤이었을 때다. 이른바 아홉수에 걸려 있던 나이였다. 호주머니에 늘 사표를 넣고 다녔다. 작가로서 흡족한 작품을 발표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었으므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법정 스님을 뵙고 내 진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다.

"스님, 직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려는 마음이 얼마나 되지요?"

"49%쯤 됩니다."

"그렇다면 더 다니시오."

이후 세월이 십여 년 흘렀다. 나는 또 예전처럼 번민에 빠졌다. 마침 성철 스님 이야기 〈산은 산, 물은 물〉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업작가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어렴풋이 들 때였다. 중년의 마흔아홉으로 또 아홉수였다. 나는 스님을 찾아가 여쭈었다.

"스님, 이제는 정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 두고 싶은 마음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되지요?"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51%,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49%입니다."

"그렇다면 그만 두시오. 삶이 실패하더라도 1%가 극복의지가 될 것이오."

스님의 말씀에 영감(?)을 얻은 나는 직장에 사표를 냈다. 물론 결단을 내린 바탕에는 〈산은 산, 물은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산은 산, 물은 물〉은 민음사 박맹호 회장께서 1주일 만에 "정 선생, 곧 밀리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줄 정도였던 것이다.

나는 그 여력으로 남도 산중에 산방(山房)을 지었다. 6개월 뒤 산방이 완성되자마자 미련 없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했다. 큰 딸아이가 고등학생일 때였다. 큰 딸아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자 어느 새 나의 산중 삶도 빡빡해졌다.



일러스트 · 정윤경

그때 큰 딸아이는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우겼다. 법정 스님께 상의했지만 스님께서는 아이가 원하면 무조건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안사람은 큰 딸아이를 보내야 한다고 더 적극적이었다. 큰 딸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인테리어아키텍처. 할 수 없이 나는 큰 딸아이에게 끈기와 근성을 심어주고자 어려운 조건을 달았다.

"미술을 하는 네가 동양의 오방색을 눈에 담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광주 증심사로 가거라. 단청 팀에 합류해 붓을 들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일해라."

그런데 큰 딸아이에게 단청 일은 전화위복이 됐다. 큰 딸아이가 원했던 미국의 대학교에서 동양적인 단청작업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가산점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큰 딸아이의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였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은총'과 '가피'를 찾는지도 모르겠다. 결코 큰 딸아이의 유학비를 위해 집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법정 스님의 일대기 〈소설 무소유〉가 독자들의 사랑을 크게 받아 빚쟁이 신세는 면했으니 말이다. 마치 법정 스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유학을 보내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또한, 큰 딸아이가 평생의 동반자를 그 대학에서 만난 것도 우리 가족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